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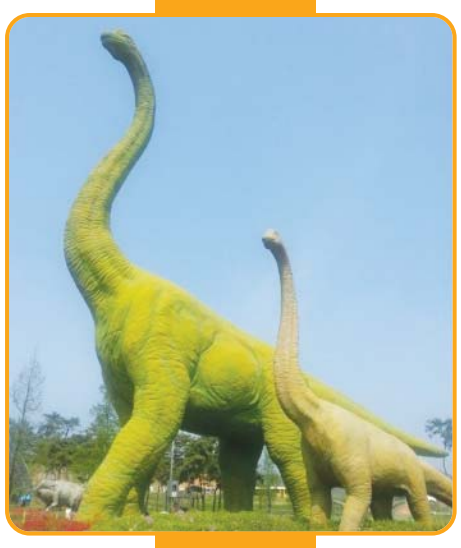
주말을 시간여행으로 즐겁게

'쥬라기월드' 가까운 곳에도 있어요

익산시 왕궁면에 소재한 공룡테마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익산 IC인근 왕궁면에 위치한 공룡테마공원은 익산의 상징인 보석박물관, 화석전시관과 함께 하나의 관광테마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화석전시관 건립당시 함께 조성된 공룡테마공원은 공룡의 실제 모양을 본 떠 만든 다양한 공룡모형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화석 포함 공룡 모형까지 전시
테마공원 입구 공룡들
실제크기로 관람객 시선 사로잡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공룡 모형, 화석전시관 둘러보기

화석전시관은 삼엽충이 살던 고생대와 포유류가 출연한 신생대의 화석들을 비롯하여 실물 크기의 공룡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화석전시관은 지질시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시대별 각종 화석과 익룡, 수장룡 실물 크기의 골격 공룡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거대한 공룡 모형이 실물 크기로 자리하고 있는 화석 전시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보석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화석전시관을 놓치면 안 된다.

▲공룡테마공원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화석전시관을 나와 왼편 공룡테마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티라노사우루스가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처음 본 아이들이 덜컥 겁을 낼 만한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위용을 뽐낸다.

삼킬 듯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을 지나면 현재 상영중인 영화 쥬라기 월드에서 보았던 다양한 공룡들이 실제크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앞발이 뒷발보다 길어서 '팔 난 도마뱀'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마치 아들과 함께 넓은 초원을 거닐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또한 오른쪽을 돌면 '이빨 없는 날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프테라노돈의 익룡이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고 '착한 어미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마이아사우라는 자신의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아이들을 지켜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일명 '박치기 공룡'으로 알려진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서로 지지 않으려 있는 힘껏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어 더욱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공룡들은 각자의 특징과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더 현실감 있는 쥐라기시대로의 여행에서 상상나래를 펼 수 있게 된다. 마침 공룡테마공원에 놀러 온 한 아이가 물끄러미 돌리 엄마로 알려진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을 보고 "책에서 보던 공룡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신기하다"며 공룡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넓은 규모의 공룡테마공원은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지켜나가는 학습활동의 장이 되기 충분하다.

/익산=우병희 기자

화석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공룡 뼈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